남감20호(南柑20號)



▲ 남감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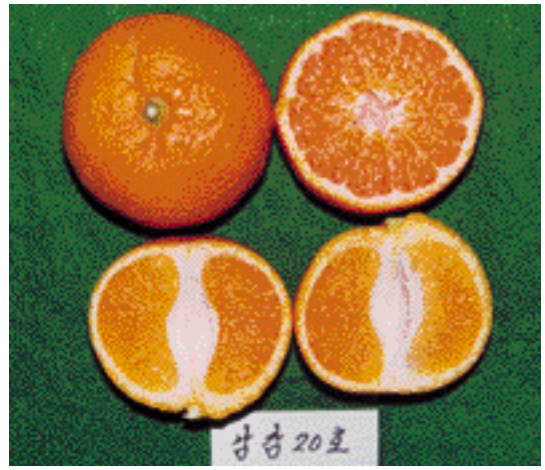
1. 육성경위

일본 에히매현(愛媛縣)에서 미장계온주보다 착색이 빠르고 품질이 높은 변이주를 발견하여 과실특성을 조사한 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1933년 남감20호(南柑20號)로 이름을 정하여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이다.

2. 주요특성

수세 및 수량성 가지는 남감4호와 궁천조생의 중간정도로 마디길이도 조금 짧다. 수세는 보통온주밀감 중에서 조금 왜성이면서 약간 약한 품종이다. 잎은 남감4호와 비교하면 약간 작고 작은 잎과 중간 잎이 혼합하여 발생한다. 나무 자람세는 개장형(開張形) 또는 늘어지는 모양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 감귤품종보존포에서의 만개기는 5월 22일경이다. 착화량이 많고 결실이 양호하여 풍산성이며 해거리현상이 비교적 적은 품종이다.

과실특성 및 품질 남감20호의 특징은 과실배꼽부분의 유포가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것이다. 과실은 큰 경향이고 균일한 편이다. 과실모양은 과형지수가 130으로 고당도 품종 중에서는 과실높이가 약간 높은 편평형이다. 유포에 요철(凹凸)이 있어 과피의 부드러움이 온주밀감 가운데는 중정도이며 과피가 두꺼우나 벗기기는 쉽다. 완전착색시 과피색이



▲ 남감20호의 과실

진하여 외관이 아름답다. 큰 잎을 가진 나무에서는 대과로 과실표면이 거친 과실이 생산되는데 이들은 남감20호(南柑20號) 본래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불량계통이므로 주의한다. 90% 이상 착색이 되는 11월 하순에 제주도농업기술원 감귤품종보존포에서의 과즙의(90~ 98년 평균) 당도는 10.7 °Bx, 산함량은 1.27%이며, 과육이 치밀하고 속껍질(양낭피)이 얇아 먹기에 좋다.

숙기 및 출하기 남감20호를 육성한 지역에서의 성숙기는 11월 상·중순이지만 제주에서는 이보다 늦은 11월 하순경이다. 수확기를 늦추면 부피과 발생이 많다. 그리고 수확기가 너무 늦어지면 저장 및 수송성이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3. 재배상의 유의점

재배적지 선정 한라산 남쪽의 서리가 늦게 오는 지역이 적합하며, 배수가 불량하고 비옥한 곳에 재배하면 과실이 너무 커지고 과피가 거칠며 맛이 담백해지는 등 재배장소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다르므로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재배한다. 특히 토양수분이 많은 포장에서는 결실성 및 과실품질이 불량하므로 심토가 얕은 건조하기 쉬운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재배관리 **우량개체 선택** - 형질이 불량한 개체가 혼입되어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량특성을 발휘하는 모수에서 번식한 접수나 묘목을 이용한다. 일본에서는 대엽계로 불리는 결실성과 품질이 나쁜 불량계통이 문제가 되어 우량개체 선발을 실시하여 불량계통을 제거하였다.

정지·전정 - 굵고 긴 결과모지에서는 품질이 떨어지므로 이런 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간다.

열매솎기 - 결실량이 적으면 대과가 되기 쉬우며, 결실량이 많은 경우 다음해 착화량이 감소하는 등 남감20호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착과조절 또는 열매솎기를 철저히 하여 적정결실 시킨다.

열매달린 가지의 굵기가 가늘어야 품질이 좋으므로 솎음 열매솎기를 할 때에는 시기를 늦게 하던지, 가지별 전체 열매솎기를 실시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토양관리 및 시비 토양이 비옥하거나 수분이 많으면 대과가 되고 과피가 거칠며 육질도 나빠지는 등 남감20호(南柑20號)의 특성이 없어지므로 주의한다.

◇ **과실품질**

지 역 별	90% 착색일 (월. 일)	과실무게 (g)	과형지수	과육비율 (%)	당 도 (°Bx)	산 함 량 (%)	당 산 비
제 주	11.23	104.2	130	77.7	10.7	1.27	8.42
일 본	11.12	117.8	139	77.9	11.8	0.89	13.3

자료원 : 제주 - 제주도농업기술원 90~ 98년 조사성적 평균
일본 - 도부(渡部) 86~ 88년 조사성적 평균